

미국의 미래와 2020년 7월 18일 - 첫 번째

언약의 동굴인들: 세상 끝날의 모세와 엘리야

Jeff Pippenger

2023-08-23

모세와 엘리야는 예언적 상징으로서, 문맥에 따라 각각 단일한 상징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둘을 함께 포함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두 증인의 증언으로 일이 확정되며,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증인을 대표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변화산에서, 이중 상징은 일요일 법령 위기의 14만 4천(엘리야)과 순교자들(모세) 모두를 대표한다. 호렙의 동굴에서는, 그들이 하나의 상징으로서, 라오디게아인을 빌라델비아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품성의 계시인 그 기별을 "듣고", "읽고", "지키는" 세상 끝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 머지않아, (아주 머지않아)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외침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데 필요한 "기름"을 어리석은 라오디게아 재림교인들이 더 이상 얻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셨사오나, 주께서 나와 함께 보낼 자가 누구인지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또한 네가 내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 하셨나이다. 그러하온즉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또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며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심이 아니이까? 그리하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에 있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구별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는 네가 내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간구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사람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바위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가리리라. 그리고 내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은 보려니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이 판들에 쓰리라. 너는 아침에 준비하여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 내 앞에 그 산 꼭대기에서 스스로 나타나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온 산에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며, 양 떼나 소 떼도 그 산 앞에서 풀을 먹지 못하게 하라. 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아 만들고,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 그의 손에 돌판 둘을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거기서 그와 함께 서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니,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이라,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며, 악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되, 결단코 죄 있는 자를 면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들의 악을 자녀와 자손에게, 삼대와 사대까지 보응하느니라 하시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이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께서 우리 가운데로 가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노니, 내가 네 온 백성 앞에서 온 땅과 어느 나라에서도 행한 적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네가 있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일을 보리니,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이 두렵고 놀라운 것임이라. 출애굽기 33:12-34:10.

모세는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 그들은 조사심판의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 그분의 "길"을 보여 주셔서 그분을 "알게" 해 달라고 구하며,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가리라"는 약속과 그분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서 그 길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쉬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 길로 행하지 않겠노라 하였느니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워 이르기를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6:16, 17.

예레미야는 "보려 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려 하지도 않는" 한 부류를 지적한다. 그들은 "선한 길"을 찾고 그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안식"을 받지 못한다. 그 안식은 이사야가 "새롭게 함"이라고 부른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교훈을 깨닫게 하겠느냐? 젖을 떼는 자들, 젖가슴에서 떼어낸 자들에게니라. 이는 훈계 위에 훈계, 훈계 위에 훈계, 줄 위에 줄, 줄 위에 줄,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듬거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를 쉬게 하는 안식이요, 이것이 새롭게 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여호와와 말씀이 그들에게는 훈계 위에 훈계, 훈계 위에 훈계, 줄 위에 줄, 줄 위에 줄,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 되었으니,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울무에 걸려 사로잡히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28:9-13.

'안식'과 '새롭게 함'은 최후의 경고 메시지가 선포되는 동안 부어지는 늦은 비를 상징한다.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감되던 때를 가리켜 보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백성 위에 머물렀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마쳤으며, 앞에 놓인 시련의 때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늦은비, 곧 주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심을 받았고, 살아 있는 증언이 되살아났다. 마지막 위대한 경고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땅의 주민들을 뒤흔들어 격노하게 하였다." 초기 문집, 279쪽.

“안식” 또는 “새롭게 함”, 곧 “늦은 비”의 약속에는 동굴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백성과 동행하시겠다는 약속도 포함된다.

그 사역은 오순절 날에 있었던 것과 비슷할 것이다. ‘이른 비’가 복음이 시작될 때 성령의 부어 주심 가운데 주어져 귀한 씨앗이 싹트게 했던 것처럼, ‘늦은 비’는 그 마침 때 추수가 익도록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같이 어김없나니, 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 같이 하시리라.’ (호세아 6:3.) ‘그런즉 시온 자녀들아 기뻐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었고, 너희를 위하여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라.’ (요엘 2:23.) ‘말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라.’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17, 21.) 복음의 위대한 사역은 그 시작을 특징지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보다 못한 모습으로 마감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의 시작 때 이른 비의 부어 주심 속에서 성취되었던 예언들이, 그 마침 때 늦은 비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바라보며 말한 ‘새롭게 하는 때’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는 주 앞에서 새롭게 하는 때가 이를 때 너희 죄가 지워지게 하려 함이요 [조사심판에서], 또 주께서 예수를 보내시리라.’ (사도행전 3:19-20.)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의 빛으로 얼굴이 환히 빛나며,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 곳곳으로 서둘러 갈 것이다. 수천의 음성으로 온 땅에 경고가 주어질 것이다.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치유되며, 표적과 기사가 믿는 자들을 따를 것이다. 사탄도 거짓 기적으로 역사하여,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기까지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13.) 이같이 땅의 거민들은 각자의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다. 대쟁투, 611, 612.

말세의 성령의 부어주심은 복음 선포의 시작 때 있었던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예표되어 왔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세상의 끝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 예언적 역사의 줄기에 또 다른 예언적 역사의 줄기를 더하는 예언의 원리였다. 곧 어떤 것의 끝은 그 시작으로 예시된다는 원리 그 자체다. 그 예언의 원칙은 미련한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사람들에게 거부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지식을 가르치실” 수 있는데, 그 지식은 다니엘이 종말의 때에 증가한다고 한 것이며, 또한 호세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거절함으로 멸망한다고 말한 바로 그 동일한 지식이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나오는, 듣거나 보기를 거부하는 그 부류는 “새롭게 함”을 거절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안식”으로서, 그들이 마지막 때의 위기를 안전하게 헤쳐 나가도록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신 ‘주님의 이름’(품성)은 ‘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품성은 자비와 진리입니다.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진리는 항상 그분의 자비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품성)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라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법과 죄를 사하신 자들이 인정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조사심판의 마지막

국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의 죄를 사하신 이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 사이의 언약은 갱신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14년 2월 26일.

모세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십사만 사천으로 지목된 자들과 자신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조사 심판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온 땅과 어떤 나라에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며, 네가 있는 모든 백성이 주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은 두려운 일이다."

시내산이라고도 알려진 호렙산에서 모세가 동굴에서 한 체험은, 하나님의 백성과 씨름하던 모세의 분투라는 맥락 속에 놓여 있었다. 그의 분투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모세는 세상에 전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고 씨름하고 있었다. 주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직전, 우리는 모세가 주님께 논리로 맞서며, 만약 주님께서 방금 아론의 금송아지 주위를 돌며 춤추던 반역자들을 멸하신다면 그들을 멸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던 그 메시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시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니,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가만히 두라.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진노가 맹렬히 타오르게 하여 그들을 소멸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로부터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에 모세가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를 맹렬히 타오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 하여 그들을 인도해 내어 산에서 죽이고 땅 위에서 그들을 멸하려 하였다 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을 뜻을 돌이키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친히 자기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히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셨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출애굽기 32:9-14.

모세의 동굴 경험에는 모세가 세상에 전하도록 위임받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주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자신의 성품을 선포하신 증언은 하나님의 반역하는(라오디게아) 백성에 관한 내부적 메시지의 맥락에 놓여 있으며, 엘리야의 동굴 경험의 맥락은 이세벨, 즉 미국, 교황권, 유엔의 삼중 연합과의 투쟁 속에 놓여 있었다. 하나는 교회를 위한 내부 메시지를, 다른 하나는 세상을 위한 외부 메시지를 대표하지만,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증인은 같은 호렙산 동굴에 있으며, 세상 끝에도 그 동굴에서 둘 다 표상된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선지자들을 죽인 일을 전하였다.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네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는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자기 사환을 남겨 두었다. 그러나

그는 홀로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이르러 앉아, 자기가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이제는 충분하오니,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하였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는 동안, 보니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하였다. 그가 눈을 들어 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머리맡에 물병이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 다시 누웠다. 여호와와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이 네게 너무 멀기 때문이다.' 하였다.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먹은 것의 힘으로 사십 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거기서 한 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냈는데, 그때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셨다. 그가 이르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열심을 내었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니, 이르시되,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 위에 서라.' 하시더니, 보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여호와 앞에서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는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서 있었다. 그에게 한 음성이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열심을 내었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길을 돌이켜 다메섹의 광야로 가라. 네가 거기에 이르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아벨 므홀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에 남겨 둔 자가 칠천 명이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열왕기상 19:1-18.

엘리야의 동굴 체험은 메시지 자체와, 자신이 전한 메시지와 사역의 효과에 대한 자신의 인식 때문에 예언자가 낙담했음을 나타낸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밝히 선언하신 메시지를 옹호하고 있었고, 엘리야는 그 메시지를 포기하고 있었다. 둘 다 같은 메시지이지만, 하나는 교회 내부를 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외부를 향한 것이라는 점만 다르다. 그러나 예언적으로 볼 때, 이 둘은 함께 요한계시록 18장의 이중적 메시지를 보여 준다. 동굴과 관련된 모든 진리에서 내가 강조해야 할 점은, '마지막 때'에 두 경우 모두에서 드러나는 낙담이 바로 그 메시지와 그 효과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주의 말씀'인 '음성'을 '듣고' '보는' 자들을 대표한다. 그 '말씀'은 자비와 진리라는 그분의 성품을 나타낸다. 시편 기자 또한 하나님의 자비, 곧 그분의 성품을 보여 달라고 간구한다. 그분의 '자비'를 보기 위해 시편 기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고 약속한다.

악장에게. 고라 자손의 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나이다 [되돌리셨나이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나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며 우리에게 대한 주의 노를 그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진노하시겠나이까? 주의 진노를 대대에까지 늘이시겠나이까? 다시 우리를 소생시키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리하시면 주의 백성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들으리니, 그는 그의 백성과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리라. 그러나 그들이 다시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참으로 그의 구원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인자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나이다.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이다. 정녕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의 땅이 그 소산을 내리이다. 의가 그의 앞서 가며, 우리를 그의 발자취의 길로 인도하리이다. 시편 85:1-13.

'자비와 진리'(그리고 '진리'는 우리가 언급해 온 히브리어 단어 'emet'를 말한다)가 의와 화평을 이루어 서로 '입맞추었다'는 점에 주목하라. 그들은 연합되었다. 시편 기자의 노래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신' 조사 심판의 마지막 날들을 배경으로 한다. 간구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소생시키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에서 부흥과 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부흥과 개혁은 서로 다른 것이다. 부흥은 영적 생명의 갱신, 마음과 정신의 능력의 소생, 영적 사망에서의 부활을 의미한다. 개혁은 재조직, 곧 사상과 이론, 습관과 관행의 변화를 의미한다. 개혁은 성령의 부흥과 연결되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부흥과 개혁은 각기 정해진 사명을 수행해야 하며,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 서로 조화되어야 한다. 선택된 기별, 제1권, 128쪽.

시편 기자가 구하는 "소생"은 자신이 죽어 있음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간구임을 드러낸다. 시편 기자가 구하는 그 소생은 라오디게아 교인에게는 청하기 매우 어려운 간구다. 라오디게아 교인은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다면 소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소생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듣겠다"고 동의함으로 이루어지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임하는 그 소생을 얻는 일보다 앞서는 다른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 가운데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 가장 크고 가장 시급한 것이다. 이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Selected Messages, book 1, 121.

요한계시록에 대해 화이트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하나의 백성으로서 이 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때, 우리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113쪽.

"revival"라는 단어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정의된다. 14만 4천에 들도록 택함받은 이들은 먼저 자신들이 죽어 있으며 소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14만 4천이 죽어 있다는 사실은 유예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그 메시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 더 말할 것이 많다. 그들을 되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살리시고" 자신의 의를 주실 때 그들에게 베푸시는 "자비"다. 그들을 되살리는

것은 예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라는 진리이며, 이 깨달음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그들 안에 낳는다. 약속은 "진리"가 "땅에서 솟아날 것이다"라는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진리"로 표상되는 그 메시지는 "땅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롯된다. 처음의 메시지는 미국에서 나왔고 마지막의 메시지도 같은 곳에서 솟아난다.

하나님의 '동굴 사람들'이 하나의 상징이라는 맥락에서, 우리는 상징적인 동굴에 있었던 다른 선지자들을 살펴볼 것이다. 예수께서는 세레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셨고, 예수가 오실 메시아인지 알 필요가 있었을 때 요한은 감옥에 있었다. 그는 예수의 참된 성품을 알 필요가 있었다. 자신이 선포했던 메시지와 예수께서 계속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참된 메시지인지도 알아야 했다. 그는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그 질문을 하게 했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제쳐두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 주셨다.

그리하여 하루가 저물어 갔고, 요한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마침내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목격한 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시며 덧붙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7:23, R. V. 그의 신성의 증거는 고통받는 인류의 필요에 맞추어 주심에서 드러났다. 그의 영광은 우리의 비천한 처지에까지 낮아지신 데서 나타났다.

제자들은 그 전갈을 전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요한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떠올렸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에게 옥문이 열림을 선포하게 하셨으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 61:1, 2.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워질지를 보여 주었다. 광야에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바로 그 진리가 요한에게도 열려졌다. 곧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셨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는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셨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셨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열왕기상 19:11, 12. 이와 같이 예수님은 무기의 충돌과 왕좌와 나라들을 뒤엎는 방식이 아니라, 자비와 자기희생의 삶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217.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말씀을 통해 전해진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된다. 그것이 '세미한 소리'의 교훈이었다. 그러나 엘리야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세력들을 식별하는 외적인 메시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들'에 엘리야에게 능력은 그의 말씀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파괴적인 바람과 지진과 불로 표현된 '무력 충돌과 왕좌와 나라들의 전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닥뜨리게 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외적 세력 가운데 세 가지를 가리킨다. 파괴적인 '바람'은 성경 예언에서 이슬람을 상징한다. 그 '지진'은 프랑스 혁명의 반역과 무정부 상태를 가리킨다. 그 '불'은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파괴를 뜻한다. 엘리야는 동굴로 피하기 위해 교황권을 피해 도망쳤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세상 끝의 위기를 이루는 모든 악한 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세미한 소리'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알려 주셨다.

모세, 엘리야, 세레 요한은 모두 동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목격했음을 증언한다. '동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주어질 유일한 표적이다. 예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는 조사 심판의 '마지막 날들'의 세대를 가리킨다. 그 세대에게 주어진 표적은 동굴—곧 고래의 배 속—에서 사흘을 보낸 선지자 요나였다.

우리가 많이 모여들었을 때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이 세대에는 요나 선지자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다. 누가복음 11:29, 30.

요나는 사흘 밤낮 동안 고래의 뱃속에 있었고, 예수님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 요나는 표징이었고 예수님도 그렇다. 그들은 부활의 표징을 나타내는데, 부활은 물론 죽음 다음에 온다.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당신에게서 표적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사흘 밤낮을 고래의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라.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38-41.

역사 반복의 원리를, 성경의 모든 역사가 세상의 종말을 가리킨다는 사실과 함께 이해한다면, 요나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표적"일 뿐 아니라 메시지이기도 하다.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서 내던져지자 그는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마찬가지로 천사가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동굴에서 바위를 치우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도 즉시 선포되었다. 모세와 엘리야와 요나와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이들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전한 메시지 또한 상징한다.

요나의 표적에는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성품이 드러나는 동굴 체험이 포함된다. 예수께서 엘리야에게 베푸신 것과 같은 자비가, 메시지를 선포할 책임을 피해 도망치던 요나에게도 베풀어졌다. 요나에 대해 더 말할 것이 많지만, 이제 다른 논점들을 다루어야 한다.

동굴은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여러 증인에 의해 한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로 식별되어 왔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하며, 이는 옛 육신적 인간의 죽음을 뜻하지만, 예언적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한 메시지가 가던 길이 막혀 중단되는 일을 가리킨다. 엘리야는 그 메시지의 선포를 멈추었고, 요나는 그 메시지의 선포에서 도망쳤다. 요한은 감옥에 던져져 처형되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은 단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표된 모든 메시지는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시고, 예수께서 가브리엘에게, 가브리엘이 선지자에게 전해 주었으며, 그 선지자가 그것을 기록하여 교회들에게 보낸 최종 경고 메시지를 대표한다. 하나님은 모세의 동굴 경험에서 그 메시지를 끝내고 다시 시작하시려 하셨다. 엘리야는 사자로서의 사역을 끝내고 동굴로 도망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했다. 세레 요한은 살해당했으며, 예수도 그러하셨다. 이 모든 증언은 요한계시록으로 가져와 서로 맞추어 보아야 한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두 권의 책이지만, "예수의 증거"는 그것들이 또한 한 권의 책임을 밝힌다. 그들은 성경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곧 두 권이 한 권을 이루고, 두 저자가 두 증인을 대표한다.

바빌론의 포로였고 이어 메대-바사의 지배하에 있었던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 상징적으로 죽었다. 요나는 고래에게 잡아먹혔을 때 상징적으로 죽었다.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에 던져졌을 때 상징적으로 죽었다. 윌리엄 밀러는 죽었지만, 의인들의 부활을 위해 천사들이 그의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이 있다. 사역 단체 '퓨처 포 아메리카'는 2020년 7월 18일 상징적으로 죽었다.

마지막 경고 메시지는 교황권이 입은 치명적 상처가 치유되는 맥락 속에 자리한다. 그 상처의 치유는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의 특정한 주제이다.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면 부활한 교황권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묘사된 여덟째 왕국이 될 것이다. 그것은 여덟째, 즉 일곱에 속한 것으로 규정된다. 여덟은 부활을 상징하는데, 언약 관계의 인침인 할레가 남자아이가 태어난 후 여덟째 날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의식은 기독교 시대에 세례로 대체되었고,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일곱째 날 다음 날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예언적 의미에서 여덟째 날에 부활하셨다. 천 년의 안식 후에, 새롭게 된 땅은 여덟째 천년기에 부활한다.